

스리랑카,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유인조치 발표

국별조사실

□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조치 발표

- 최근 스리랑카는 농업과 섬유산업의 과도한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산업 다변화를 꾀하고 각종 사회 인프라의 전산화를 통한 비용 감소와 전자 정부 수립을 목표로 「E-Sri Lanka」¹⁾라는 IT 진흥책을 발표함.
 - 통신부문의 민영화, 통신규제의 완화, 전자관련법의 제정, IT전문단지의 설립, IT 전문 교육과정 설립 및 인재 양성이 주된 내용으로 2003년까지 관련 실질 정책의 수립, 2005년까지 국가 정보 인프라 정비 및 세계표준의 정보통신 인재 개발, 2007년까지 전자 정부 수립 및 IT기술을 활용한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함.
-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신규 및 확장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우대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적용 기간의 연장, 우대조치에 적용되는 최저 투자금액의 인하가 주된 내용이며 수도 콜롬보가 속해있는 서부주를 「지역 I」로 그 외를 「지역 II」로 구분하여 항목에 따라서 조건을 차등 적용함.

1) 「E-Sri Lanka」는 세계은행, 외국 정부기관, NGO 등의 자문을 받아 스리랑카 정부가 계획한 국가 IT 5개년 진흥책임.

〈그림〉 스리랑카 지도



〈표〉 업종별 법인세 감면조치

		법인세면제기간	최저투자액	비 고
섬유, 전자 등 수출지향형 제조업 부문	신규 투자	「지역 I」 3년 「지역 II」 5년	15만 달러	
	확장 투자	2년	100만 달러	「지역 II」 로의 확장이전 투자는 50만 달러이상

		법인세면제기간	최저투자액	비 고
농업, 수산업, 농산물 가공업 부문		5년	1만 달러	
인프라 부문	대 규 모	6년	1,000만 달러	
		12년	7,000만 달러	
	기타 규모	「지역 I」 3년 「지역 II」 5년	50만 달러	
산업용 공구·기계 제조업 부문		「지역 I」 3년 「지역 II」 5년	15만 달러	
R & D		5년	5만 달러	

□ 큰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

- 반군과의 내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여 정치·사회적 불안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큰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시됨.
- 지난 9월부터 6차례에 걸쳐 반군과의 평화협상이 진행중이나 반군 무장 해제 등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 또한, 내전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내전피해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시행에 대한 재정조달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스리랑카의 기본 인프라 상태는 이러한 IT 기술을 활용하기에 여건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의 자구책보다는 올 여름 동경에서 개최되는 자금 지원국간의 경제지원 협의 결과가 더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전문연구원 류재욱 (☎3779-6678)
E-mail : jaeukkor@koreaexim.go.kr